



# 빛의사람들

2018.8.

276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 성모 승천



© Photo RMN, Paris - GNC media, Seoul / 출처 :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루카 1,42)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회

6월 8일(금)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회가 교정사목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장이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비롯한 이사, 감사, 정회원분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교정사목의 걸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사·운영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삼각지 성당 후원회원 모집미사

6월 16일(토)~17일(일) 삼각지 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부위원장 신부는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따뜻한 마음들이 수용자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함께 일하는 신부, 봉사자, 직원들도 힘이 난다”며 후원을 부탁하였습니다. 더불어, 삼각지 성당 최재용 주임 신부는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우리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람이라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수용자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임 신부님과 본당의 교우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50명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새로운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삼각지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10주년 기념미사

6월 24일(토) 기쁨과희망은행 10주년 기념미사가 교정사목센터 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기쁨과희망은행 10년을 돌아보면 상황도 좋지 않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출소자라는 꼬리표, 색안경 때문에 사회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힘든 만큼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일이다”며 “앞으로 또 다른 10년, 100년이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거친 세상을 향해 웃으며 승리를 날리자”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출소자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이 될 수 있는 기쁨과희망은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7월 2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미사의 주례를 맡아주신 이상원 부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하느님께 의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소외받는 이들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각 교정시설 세례식 및 방학식

각 교정시설에서 세례식과 방학식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1명,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5명, 서울구치소 남사 4명, 서울동부구치소 5명의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가 함께 자리하여 총 15명의 형제님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어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형제님들과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 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에 루카 복음 2장의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이 구절을 읽고 세 가지 생각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엘리사벳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었구나.

두 번째 생각은 엘리사벳은 누구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며,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에겐 기쁜 소식이나 기쁜 일이 생기면 제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기쁨을 받아들이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아플 수가 있고, 공감하며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듣고 나서 우리 마음 안에 움직이는 감정을 잘 살펴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남의 인생과 비교(‘사회 비교 이론’ 레온 페스팅거)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보다 더 기쁜 사람, 저보다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 저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 저보다 운이 더 많은 사람,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등등.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질투도 나고, 슬프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지 한 번 함께 고민해 볼까요?

“기쁨은 개인적인 결정이고,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해야 할 결정입니다.”<sup>1)</sup>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감정뿐만 아니라 인생 태도와 미덕(Virtus)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작업을 해 볼까요?(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1. 이번 주 동안 몇 번이나 미소 지었습니까?
2. 이번 주 동안 몇 번 기쁜 소식(좋은 소식)을 나눴습니까?
3. 이번 주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몇 번이나 진심으로 기뻐했습니까?

서양 가톨릭 성가 “순례자 교회”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민족이고 부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쁨의 선교사, 희망과 사랑의 예언자, 복음(기쁜 소식 福音)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sup>2)</sup>

파파 프란치스코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복음을 행동으로 옮겨라”<sup>3)</sup>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기쁜 소식 福音)을 선포하여라”<sup>4)</sup>

무더운 8월,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만나요. 🙏

1) Pilar Sordo 칠레 심리학자.

2) Iglesia Peregrina (Cesareo Gabarain)

3) Gaudete et exultate 프란치스코 교황.

4) 마르코 16, 15



## 바벨 사람들

현대일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죄의 의미, 벌의 의미를 묵상할 때, 바벨탑 이야기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아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 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겨레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창세 11,1-9)

신아르 지방의 바벨이 배경입니다. ‘바벨’은 사실 바빌론을 가리키고, 바빌론은 ‘하늘의 문’, ‘신들의 문’이라는 뜻인데, 성경은 뒤섞다, 어지럽히다라는 뜻의 ‘발랄’과 연결하여 풀이합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신들의 문’이 ‘혼돈’으로 변한 것일까요?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의 바빌로니아 제국의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었고,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계단 모양의 고대 신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바벨탑인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 탑을 쌓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3절) 쓸 정도로, 그리고 성읍과 탑을 세울 정도로(4절)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탑이 수 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보면, 기술력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그 말이 뒤섞이게 되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느님은 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탑을 높이 쌓은 것 자체가 문제



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고층 빌딩을 짓고 사는 우리 역시 하느님의 벌을 피할 수 없겠네요. 게다가 그 높은 탑은 하느님과 겨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려는 건축물이었다고 하잖아요. 혹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탑이었기에 내치신 것일까요? 아니면, 문명의 발전을 역겨워하신 것일까요?

성읍을 세우고, 탑을 올리는 바벨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문명의 발달을 이루는 바벨 사람들은 분업화가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을 짜는 사람, 진흙을 빚는 사람, 벽돌을 굽는 사람부터 굽기 위해 장작을 나르는 소년들, 부모님들이 일하는 동안 동생을 돌보는 아이들까지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히,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같은 말을 썼기에 가능했지만,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있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작을 구해오는 일은 보잘 것 없는 일이라고 알리지 않고, 계획을 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서로 존중했기에, 너는 내 지시만을 따라,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 말을 들어라는 일방적이고 획일적 지시가 아니었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느님을 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성읍을 세우고 탑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름을 날리자’가 문제였습니다. 하느님 신전을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내 명성을 퍼뜨리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짓습니다. 이제 남들 속의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주의적이고, 획일주의에 빠집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한없이 높이 올라간 듯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명성이 높이 올라갔고, 내가 그리 대단하게 생각되며, 그래서 하느님과 같아졌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이사 14,13,14)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했건만,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창세 11,5)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쓰더라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속이고, 견제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내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만 둡니다. 성읍을 세우는 것도, 탑을 세우는 것도 그만 둡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흩어집니다. “흩어지지 않게”(창세 11,4) 탑을 세우지만, 결국 자기 오만의 탑을 쌓다가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교만과 독선이 결국 소통의 단절과 그리하여 그렇게 웅장하게 쌓은 문명의 발전 역시 그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오순절 성령강림을 떠올리게 됩니다(사도 2,1-12 참조). 사도들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모두 저마다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이 소통과 통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일치와 단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름을 거절하고, 다양성을 통제하는 것을 하느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일치는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할 때, 그렇게 상대방의 고유함을 존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 교정사목 체험 후기:

## 우리 모두는 죄인

● 강나루 미카엘 /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4학년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위원회에서 일주일간 사목 실습을 하면서, 하루는 서울 구치소에서 예비자 교리를 맡아서 했다. 준비해 간 내용을 전달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한 재소자가 저 십자가 위에 있는 'INRI'(Jesus Nazarenus, Rex Iudaeorum)라는 글자가 무엇인지 물었다.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사람) 예수'라는 의미로써 반역죄로 몰린 예수님의 죄명이라고 알려줬다. 예비자들은 예수도 죄인이었다는 것에 동질감을 나타냈다. 그분들에게는 교리 지식보다 그저 인간으로서 그냥 숨 쉬고 싶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간식을 먹고, 작은 친교를 나누면서, 뜻하지 않은 내 모습과 대면하기 시작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선입견에 싸여, 무의식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았는지 반문하게 되었다. 실습 기간 동안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출소자들을 위한 평화의 집에서 같이 묵으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라파엘 형제님(출소자들을 위한 집에서 머무는 형제님)께서 교도관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도 반(半)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교도관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애환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루는 교도관들과 함께 미사를 하고 가진 식사 자리에서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도관들의 진솔한 고충도 들을 수 있었다. 실습 마지막 날이었던 일요일에는 출소자들의 정착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 기쁨과희망은행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미사도 같이 드렸다. 이런 여러 실습 프로그램 속에서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보았을까?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주일 함께 하고서, 무언가 느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교정사목 환경이 어떤지 나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내 눈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대신하고

있는 듯한 신부님들과 직원분들과 봉사자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음을 느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냉대에 시달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고전분투하는 교회를 볼 수 있었다.

예수도 '반역죄인'이었다.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는 구원되었다. 교정사목 실습을 마치며,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차별의 생각들을 들어내야 한다는 자각이 이렸다. 그리고 '죄'와 '죄인'은 연관되어 있지만,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님'을 느낀다. 그리고 사회적인 교도(矯導)를 떠나서, 최종적인 정화(淨化)는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교정사목이 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가톨릭 교의는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르친다.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罪性)을 가진 인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는 그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실습을 마쳐가면서 들었다.

내가 교정사목 실습을 하면서 만난 것은 하느님을 닮은 보통 사람들이고, 한편으로는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존엄한 인간이었다. 교정사목 실습을 하면서 내가 새롭게 느끼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우리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찬 부끄러운 고정관념을 지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번 실습이 우리 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그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이끄심의 시간이었다.

● 박유민 세례자요한 /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4학년

일주일에 걸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연수는 내게 특별한 체험이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치소에 갇힌 수용자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모든 이" 안에 수용자들도 포함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내 안에는 마음의 벽이 있었다. 이 체험을 통해 난 그들을 우리와 같은 형제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동안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갔을 때 그곳을 둘러싼 철창과 삼엄한 경비 시설이 나를 긴장하게 했다. 시골벽적인 바깥 환경과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에 둘러싸인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차단된 곳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수감 시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철창문을 통과해야 했고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통로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실감케 했다.

교정사목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던 이번 연수는 내게 굉장히 새로웠고, 그동안 지냈던 잘못된 선입견들을 바로 볼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미사와 집회는 교도관의 참관하에 이뤄졌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갖고 있던 고독, 후회, 간절함을 교감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교정사목 신부님들, 직원분들, 봉사자들의 헌신과 교도관들의 협조로 가능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많은 분의 수고와 마음이 모여 수용자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는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용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한분 한분 기억하며 가족처럼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비록 일주일에 몇 번 없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수용자들에게 그것은 철창 너머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일주일 동안 연수 하면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형수와의 미사였다. 적어도 16년에서 많게는 25년을 복역 중인 사형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다.

수용자들도 한때 우리와 같은 사회 일원이었고 우리는 그들이 공동체에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교정에 힘써야 한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임을 상기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비와 신의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실천할 수 있어야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넘어 함께 더불어 살 힘이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 주고,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히브 13,3)

#### ● 김병규 대건 안드레아 /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4학년

처음 교정사목연수를 선택한 계기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즉 지금껏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과 만남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물론 구치소나 교도소에 출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 쉽게 받아들여 지진 않았다. 그렇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교정사목연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주일 내내 나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만약 이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 주변의 그 어디에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어떤 이는 어딘가 어느 본당의 사목회장처럼 말끔하고 신사적인 이미지였고, 어떤 이들은 동네에서 친근하게 보던 할아버지 같았으며, 어떤 이들은 그냥 본당에서 보던 학생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곳으로 오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수많은 체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은 단연 최고수(사형수)와 만남이었다. 이들과 만남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많은 긴장을 했다. 조폭 출신이라던 형제는 처음 수감되었을 당시에는 구치소 안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며 왕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는 형제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 형제는 존재에서부터 진정 회개한 자의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부끄러웠다. 사제가 되길 희망한다는 나는 정작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슬펐다. 사제를 지망하며 신학생의 탈을 쓰고 그 존재의 가치만큼 살아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역효과는 그 어느 것보다 치명적일 터이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함께 지낸 일주일간 보았던 신부님들의 모습은, 근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제때 식사를 하지도 못했고,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도 않았다. 그래도 신부님들은 삶은 기색이 없으셨다.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살아내야만 하는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왕관(사제직이 왕관은 아니지만)을 쓰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1

\*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4학년 신학생들이 일주일 간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체험한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직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하느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한난순 아가다 /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자라는 말이 부끄럽지만,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를 다닌 지 7년이 되어간다. 돌이켜 보니 그동안 봉사를 하면서 수용자 자매들에게 할애하는 시간보다 봉사자들과 어떻게 하면 봉사를 더 잘할까 궁리하며 보낸 시간이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의견을 모으다 보면, 가끔 봉사자 개개인의 주장이 강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하는 고민 안에서 가끔은 나의 모자람을 느꼈고, 인간이 행하는 일에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 고민과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어 나에게는 큰 은총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처음 봉사 와서 열의가 넘치는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사랑스럽다. 나도 처음 수용시설에 있는 자매들과 만날 때 그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하였고, 봉사하러 왔으니 무언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해줘야 할 것 같아 부담을 가지기도 했다. 그런데 김성은 베드로 신부님(前 위원장)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 자체가 봉사라고 하시면서 낮은 자, 겸손한 모습으로 있으라는 말씀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천주교 집회에 나오는 자매들이 집회 참석 횟수가 거듭될수록 편안함을 느낄 때, 신부님 강론에 위안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세례의 은총을 받는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주고자 했던 내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다. 봉사자로서 자질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나의 작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뿐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사실 우리 봉사자들의 봉사시간은 자비로운 사랑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시간이다. 아주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이 이런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만큼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그저 하느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사이 좋게 봉사하는 봉사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함께 봉사하는 우리 동부구치소 여사 식구들과 남사 식구들, 그리고 각 구치소, 교도소에서 봉사하는 자매들과 교정센터 직원들, 신부님 모든 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손짓을 보내며 하느님의 뜻이 함께하시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1





# 흰머리

최 아드리아노3세

처음부터 흰 머리가 아니었다  
반평생이 넘어가는 길목에  
하나 둘 새끼에 새끼가 낳은 듯 하다

내 자식도 자식을 낳았으니  
내 가슴도 하얗게 물들었으리라

마음은 청춘이어서  
백발의 구석구석 뽑아본다

한올 한올에 하얀 미소가 피어나고  
이제야  
주님 닮은 거울 속에  
오롯이 기대어 본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님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시로 봉헌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문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억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들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꽃 피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 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포기의 난초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이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리아의  
달

(7)

양상우  
도로테아

사랑함을  
여어니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후원알림마당

##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 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

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결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8년 9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및 피정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9월에는 후원회원을 위한 피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30~14:00 \* 장소 :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9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6/12~7/13)

6월~7월에는 삼각지 본당 50명의 교우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행사 알림

- 8월 1일(수)~2일(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직원 워크샵
- 8월 6일(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8월 7일(화)~10일(금)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 고봉중고등학교
- 8월 10일(금)~11일(토) 해밀(피해자) 가족 야유회 / 대부도
- 8월 1일(수), 13일(월)~14일(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3기 집중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8월 14일(화) 제4회 한국청년대회 체험 부스 / 올림픽 공원 SK 핸드볼 경기장
- 8월 25일(토) 고봉중고등학교 세례식 / 고봉중고등학교
- 8월 31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회 / 교정사목센터

## 2018년 제20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때: 9월 7일-11월 30일 (매주 금) 오후 2시-5시
- 회비: 10만원
- 곳: 교정사목센터(성북구 삼선교로20길 27)
- 문의: 921-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SC 제일은행 계좌 해지 안내

SC제일은행(109-10-276339) 후원계좌를 해지합니다. SC제일은행(자동이체)으로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사업부: 02-921-5094)

##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